

“바울의 기상”

사도행전 26:24-29

벨릭스 총독에게 후송된 후에 사도바울은 거기에서 세 번의 재판 받습니다. 첫번째 재판은 벨릭스 총독에게 받고, 두번째는 벨릭스 총독의 후임자 베스도 총독에게, 그리고 마지막 세번째 재판은 아그립바 왕에게 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번째 재판인 아그립바왕에게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 장 1 절부터 시작해서 26 장 거의 대부분의 분량을,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들을 당당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보다 더 강력한 설득은 없습니다. 사실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체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들어오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그립바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행 26:19-21)

이 뿐 아니라, 그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듣는 이로 하여금 깜짝 놀랄만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행 26:22)

바울은 자신이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핍박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증언합니다. 지금 이런 고난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조차 ‘하나님의 은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도우심’, ‘은혜’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위기, 고난의 상황에서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며 은혜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속에서 발생하는 위기의 순간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우리에게 감사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 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행 26:24)

베스도는 바울이 뛰어난 엘리트이며, 석학 중의 석학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그가 미쳤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행 26:25-26)

바울은 자신이 미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참되고 진실된 말임을 밝히고, 이제는 베스도 총독을 뛰어 넘어 아그립바 왕을 향해 도전하게 됩니다.

“아그립바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행 26:27)

그러자 아그립바왕은,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행 26:28)

즉, 아그립바왕도 바울의 열정적인 간증과 설교를 들으며 자칫 그리스도인이 될 뻔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아그립바 왕을 향해 당당하게 믿음의 선언을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행 26:29)

사도 바울은 지금 세상적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왕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눅들고 위축될 수도 있을 법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담대하게 '나처럼 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바울의 이 멋진 기상을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직장과 가정, 학교와 사회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과 학교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한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나처럼 살아보십시오!"** 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 **"얘들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아빠처럼, 엄마처럼 너희들도 살기를 바란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구원의 복음은 이 세상 그 어떤 것 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마 13:44)

이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모두 팔아서 보잘 것 없는 밭을 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그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주변 사람들은 그를 향해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놀렸겠지만, 그 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동일하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행동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바라보는 대상을 바꾸어 주게 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 바꾸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관점과 시선이 바뀌면 우리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말입니다.

복음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가 기쁨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에도 기뻐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둘째가 감사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감사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상황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셋째가 담대함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복음을 소유했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모른다면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복음을 소유한 바울은 죄수의 신분임에도 자신의 재판하는 재판장들보다 더 담대하고 기상이 넘칩니다.

영원한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은, 유한한 기쁨이 될 수 밖에 없는 세상적 권력, 세상적 쾌락과 가치 기준에 대해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되짚어 보십시오.

우리는 혹시 소극적이고 위축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닙니까? 직장과 학교, 가정과 세상속에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당당하고 담대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함으로 인해, 세상을 향해 '나처럼 예수 믿어보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눔의 시간

1. 바울은 억울하게 재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의 상황들을 가리켜 '도우심', '은혜'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와 '은혜'가 떠올랐던 기억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우리는 직장이나 가정에서 '나처럼 예수 믿어보라!'고 당당하게 말해볼 수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나로 하여금 주저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정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3.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